

[로스쿨 소식]

2023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9명은 'SKY' 출신

- 서울대 66.2%·연세대 15.2%·고려대 9.9% 順
- 상경계 30.5%→41.1%로 쏠림...사회·인문계 順
- LEET성적, 전체 평균 57.97점→58.33점으로 ↑

2023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선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9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SKY' 대학 쏠림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총 151명(일반전형 140명, 특별전형 11명) 중 서울대 자교 합격자는 100명으로 전체의 66.2%다. 이는 자교 출신 쿼터 규정상 사실상 최대치에 이르는 수치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쿼터제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가 23명(15.2%)으로 뒤를 이었다. 연세대는 2022학년도에는 19명(12.6%)이었지만 올해는 더욱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고려대는 22명(14.6%)에서 15명(9.9%)으로 감소하며 2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다.

이들 상위 대학의 합격자는 138명으로 전체의 91.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는 141명(93.4%)보다 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밖에 성균관대 출신 4명(2.6%),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4명(2.6%), 경찰대 3명(2.0%), 한양대와 미국 존스홉킨스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는 지난해(2명)보다 다소 늘어나 강세를 보였으며 경찰대학도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카이스트는 지난해보다 2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대학 현황〉

대학교	성 별				계	
	남		여			
	22학년	23학년	22학년	23학년	22학년	23학년
경찰대	1	2	0	1	1	3
고려대	10	8	12	7	22	15
서울대	52	55	48	45	100	100
성균관대	2	1	0	3	2	4
연세대	10	15	9	8	19	23
KAIST	5	3	1	1	6	4
한양대	0	1	0	0	0	1
해외대학	0	1	0	0	0	1
서강대	1	0	0	0	1	0
계	81	86	70	65	151	151

*23학년도 해외대학은 Johns Hopkins University임.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총 8개 대학으로 지난해보다 1개교가 늘었다. 지난해 배출하지 못했던 한양대와 해외 대학에서 각 1명의 합격자를 냈으며 서강대는 올해 합격자 배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출신 계열별로 보면 상경계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경계열 합격자는 지난해 46명(경제학과 30명, 경영학과 15명, 식품자원경제학과 1명)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지만, 2023학년도에는 62명(경영학과 31명·경제학과 31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무려 41.1%

에 달했으며 지난해보다 10.6%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 상경계열 학생들이 5급 공채에서 로스쿨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자유전공학부 등 기타 전공자도 11명(7.3%)에서 14명(9.3%)으로 증가했다.

상경계열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계열 학생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계열 전공자의 합격자는 28명(18.5%)으

로 지난해(42명, 27.8%)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회계열에서는 정치외교학과(부)가 13명(8.6%)으로 가장 많았다.

인문계열은 21명(13.9%)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인문계열에서는 특정 학과의 쓸림이 적었지만, 국어국문학과(5명)와 철학과(4명)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어 공학계열이 11명(7.3%)으로 뒤를 이었으며 지난해(12명, 7.9%)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범계열도 7명(4.6%)에서 6명(4.0%)으로 줄었다. 자연계열 역시 9명(6.0%)에서 5명(3.3%)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법학과 3명, 의학과 1명, 농업계열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86명(57.0%)로 지난해 81명(53.6%)보다 3.4%포인트 증가한 반면 여자는 70명(46.4%)에서 65명(43.0%)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이 140명, 특별전형 11명이었으며, 일반전형에서는 남자가 76명으로 54.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73명, 52.1%)보다 증가했다. 여자는 67명(47.9%)에서 64명(45.7%)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평가 요소별 합격자 평균 점수의 경우 법학적성시험(LEET)은 60점 만점(백분위)에 전체 58.33점으로 지난해(57.97점)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의 평균은 58.44점, 특별전형 56.84점이었으며 일반전형은 지난해보다 0.42점 상승했으며 특별전형은 오

히려 0.54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5% 지점의 합격자 전체 평균은 59.10점이었으며 일반전형 59.22점, 특별전형 58.83점이었다. 상위 50%는 전체 평균 58.54점이었으며 일반전형 58.54점, 특별전형 56.82점 등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도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전체 58.25점(60점 만점)으로 일반전형 58.29점, 특별전형 57.73점 등이다. 상위 25% 지점에서는 전체 58.92점이었으며 일반전형 58.92점, 특별전형 58.56점 등으로 나타났다. 상위 50%는 전체 58.32점, 일반전형 58.32점, 특별전형 57.72점 등이다.

영어성적은 원칙적으로 지원기준으로 활용된다.

LEET 58.33점(60점 만점)은 백분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언어(0.4)와 추리(0.6) 백분위 평균 97.21점에 해당한다.

학업성적 58.25점(60점 만점)은 백분위 100점 기준으로 학점 평점 평균의 백점 환산 점수 97.08점에 해당한다.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오는 7월 23일에 실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1일 오후 6시까지다. LEET 성적 발표는 오는 8월 22일 예정이다.

〈2023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결과〉

1. 성별현황

성 별	일반전형		특별전형		계	
	22학년	23학년	22학년	23학년	22학년	23학년
남	73	76	8	10	81	86
여	67	64	3	1	70	65
계	140	140	11	11	151	151

2.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

구 분	적성시험(60점 만점)					
	전체		일반전형		특별전형	
	22학년	23학년	22학년	23학년	22학년	23학년
평균	57.97	58.33	58.02	58.44	57.38	56.84
상위 25%	58.96	59.10	58.96	59.22	59.32	58.83
상위 50%	58.16	58.54	58.16	58.54	57.79	56.82
상위 75%	57.13	57.82	57.19	57.90	56.76	56.32

구 분	학업시험(60점 만점)					
	전체		일반전형		특별전형	
	22학년	23학년	22학년	23학년	22학년	23학년
평균	58.13	58.25	58.15	58.29	57.82	57.73
상위 25%	58.62	58.92	58.62	58.92	58.62	58.56
상위 50%	58.08	58.32	58.08	58.32	57.78	57.72
상위 75%	57.66	57.72	57.66	57.73	57.30	57.60

(출처/법률저널)